

## 국토부·고용부 장관,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

- 집중호우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 당부
- 5~7월 우기대비 현장점검, 6월~8월 「폭염·호우·태풍 특별 대응기간」 운영

-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,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7월 12일 오전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\*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.
    - \* (주소)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12, (공사금액) 3,092억원, (공정률) 50.0%
  -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(31층)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.
-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①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과 ②태풍 시 타워 크레인,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, ③붕괴,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,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매년 취약시기(해빙기, 우기, 동절기)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,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  - 관계기관 합동으로 1,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(5.22.~7.17.)을 실시하고 있으며,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시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중이다.

-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,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~8월을 「폭염·호우·태풍 특별 대응기간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부,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폭염·호우·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.
- 박상우 장관은 “장마 기간 동안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국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,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 확인하여 강우 시에는 타설을 지양하는 등 장마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하는 한편,
  - “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 작업에서의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,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”를 주문할 예정이다.
-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“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,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고 언급하며, “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할 예정이다.
  - 또한, “장마 이후의 본격적인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·그늘·휴식 등 기본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달라”고 당부할 예정이다.

<국토교통부>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상옥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훈 (044-201-4593)
<고용노동부>	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35)
		담당자	연구관	민병윤 (044-202-8943)
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과 장	신옥균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